NC 테임즈, 메이저리그 복귀여부에 '관심'

한국 무대 3년 동안 타율 0.349 124홈런 382타점 기록… ESPN "최대 3년 1800만 달러까지 가능"

NC 다이노스에서 세 시즌 동안 활약한 외국인 타자 에릭 테임즈(30)의 메이저리그(MLB) 복귀 여부가 현지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21일(한국시간) "한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에릭 테임즈가 메이저리그로 돌아올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테임즈의 메이저리그 복귀 가능성을 점쳤다.

ESPN은 테임즈의 빅리그 복귀 가능성을 높게 점치면서 테임즈가 빅리그에 복귀하면 2년간 1200만 달러 또는 3년간 1500~1800만달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테임즈가 이번 겨울 메이저리그 자유계약선수(FA) 시장의 '와일드 카드'가 될 수도 있다고 전한 ESPN은 테임즈의 과거를 소개했다.

ESPN은 "아마 토론토 블루제이스 팬들은 2011년과 2012년 플래툰 외야수로 뛴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2008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7라운드에 토론토 지명을 받아 프로 무대를 밟은 테임즈는 2011년 빅리그에 데뷔했다.

플래툰 외야수로 뛴 테임즈는 2011년 95경기에서 타율 0.262 12홈런 37타점을 기록했고, 2012년 토론토와 시애틀 매리너스에서 86경기에 출전해 타율 0.232 9홈런 25타점의 성적을 냈다.

ESPN은 "토론토에서 테임즈의 외야 수비는 평균 이하로 평가됐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2014년 한국 무대를 선택한 테임즈는 NC에서 뛰는 3년 동안 괴물같은 성적을 거뒀다. 한국에서 3년 동안 타율 0.349 124홈런 382타점을 기록했다. 지난해와 올해에는 2년 연속 40홈런을 돌파했다.

테임즈가 한국에서 뛰는 동안 만화 같은 성적을 거뒀다고 소개한 ESPN은 "수염을 기른 근육질의 사나이는 괴력을 발휘했고, 인기도 높았다"며 에이전트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테임즈의 에이전트인 애덤 캐런은 "마치 동화책에 나오는 영웅 같다고 하더라. 테임즈와 함께 가는 곳마다 난리가 났다. 마치 비틀스와 걷는 기분이었다"며 "소녀들은 비명을 지르고 사람들은 테임즈를 만지려고 하고 사진을 찍으려 했다"고 말했다.

ESPN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오클랜드 애슬레틱스, 탬파베이 레이스는 꾸준히 한국으로 스카우트를 파견했다. 그리고 여러가지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NC가 올해 150만 달러의 연봉을 받은 테임즈와 재계약할 수도 있고, 일본에서도 계약 제안을 받을 수 있다"며 "아니면 마이클 선더스, 콜비 라스무스, 미치 모어랜드, 애덤 린드, 페드로 알바레스, 브랜던 모스가 있는 메이저리그 좌타 거포 자원에 합류할 수도 있다"고 한·미·일에 대한 가능성을 모두 열어놨다.

ESPN은 테임즈가 시즌 막판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을 전하면서도 한 메이저리그 동부지구 스카우트의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 스카우트는 "테임즈는 한국에서 정말 열심히 했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았다"고 평가했다.

ESPN은 "관건은 한국에서 쌓은 실력이 메이저리그에서도 발휘될지 여부"라며 "메이저리그의 큰 구장에서 한층 뜨거운 경쟁을 뚫을 수 있을지, 시속 94~95마일짜리 빠른 공을 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질문을 던진 후 에이전트의 답변을 소개했다.

동부지구의 한 에이전트는 "테임즈는 굉장히 공격적이다. 초구 직구를 선호하고 공을 아주 강하게 때린다. 콘택트에 더 집중하는 선수들이 있지만, 테임즈는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민근기자

테임즈는 NC에서 뛰는 3년 동안 괴물같은 성적을 거뒀다. 한국에서 3년 동안 타율 0.349 124홈런 382타점을 기록했다. 지난해와 올해에는 2년 연속 40홈런을 돌파했다.

임실군체육회장배 테니스대회 '성료'

제17회 임실군체육회장배 테니스대회가 지난 19일 공설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군 체육회(회장 심민)가 주최하고 군 테니스협회(회장 라승득)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심민 군수를 비롯한 문영두 군의장, 이용호 국회의원, 테니스 동호인 등 150여명이 참여했다.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참가 동호인들이 각자의 명예를 걸고 그동안 쌓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친목과 화합을 도모했다.

심민 군수는 대회사를 통해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대회가 아닌, 그동안 갈고 닦은 자신의 기량을 가늠해 보는 배움의 한마당"이라며, "앞으로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기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첼시, 리그 선두 도약

첼시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선두로 올라섰다.

첼시는 21일(한국시간) 영국 미들즈브러의 리버사이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6~2017 EPL 미들즈브러와의 원정경기에서 1-0 승리를 거뒀다.

10월 4전 전승을 포함해 리그 6연승을 질주한 첼시는 승점 28(9승1무2패)로 리버풀(승점 27·8승3무1패)을 따돌리고 1위 자리를 꿰찼다.

첼시는 이번에도 3-4-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시작했다. 게리 케이힐과 다비드 루이스, 세사르 아스필리쿠에타가 수비라인을 꾸렸다. 시즌 초반과 달리 안정 궤도에 진입한 첼시 수비진은 미들즈브러 공격진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

첼시는 후반에도 주도권을 쥔 채 시간을 보내며 그대로 경기를 마무리 했다.

안토니오 콩테 감독은 "한 골도 내주지 않고 6경기를 모두 이길지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결과에 만족스러워했다.

/김민근기자

LPGA 최종전 준우승 유소연, 세계랭킹 톱10 진입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16시즌 마지막 대회인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유소연(26·하나금융그룹)이 세계랭킹 '톱10'에도 진입했다.

유소연은 21일 발표된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 지난주보다 2계단 오른 10위를 차지했다.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 마지막날 18번홀에서 극적인 버디를 성공시키며 올 시즌 베어트로피(평균 최저타수상)의 주인공이 된 전인지(22·하이트진로)는 3위로 시즌을 마무리했다. 신인왕과 함께 2관왕에 오른 전인지는 데뷔 첫 해 세계랭킹 1위 뉴질랜드의 리디아 고와 2위 태국의 에리야 쭈타누깐과 '톱3'를 형성했다.

김세영(23·미래에셋)이 한국 선수 중 두 번째로 높은 6위를 유지했다. 올 시즌 세계랭킹 2위로 시작했던 박인비(28·KB금융그룹)는 부상과 재활을 반복하는 등 정상적인 시즌을 소화하지 못하면서 7위로 시즌을 마쳤다.

/김민근기자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올림픽 출전 포기 외압 받은 박태환

"김종 만났을 때 무서웠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이 열리기 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으로부터 출전을 포기하라는 외압을 받은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27)(사진)이 당시 상황에 대해 "무서웠다"고 입을 열었다.

21일 박태환의 매니지먼트사인 팀GMP에 따르면 박태환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취재진과 만나 "(김 전 차관을 만났을 당시) 무섭기도 했다. 선수로서 앞으로 감당할 수 있는 무게와 책임 등에서 무서움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박태환과 김 전 차관의 만남은 지난 19일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5월25일 박태환과 팀GMP 관계자들을 만나 "예를 들어 (대한체육회의 반대를 꺾고 올림픽에 나가면) 단국대학이 부담 안가질 것 같아? 기업이 부담 안가질 것 같아?" 등의 협박성 어조로 박태환에게 압력을 행사했다.

박태환은 "수만가지 생각이 들었다. 긴장도 많이 됐다. (김 전 차관은)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너무 높으신 분이었다"고 떠올렸다. 이어 그는 "올림픽을 앞둔 상태에서 내가 (금지약물 적발이라는) 안 좋은 일도 있었고, 그에 대한 무게감도 많았다. 올림픽에 출전할 수만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장 컸다"면서 "그 외에는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때 워낙 긴장을 해서 많이 들고만 있었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의 이야기를 듣고 심경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올림픽을 안 갔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박태환은 "기업 후원이라던지 교수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것이 귀에 들어오기 보다는 '올림픽 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가 생각났다"고 덧붙였다.

김 전 차관의 외압 등 당시 부정적인 분위기들이 올림픽에서의 부진에 영향을 끼쳤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올림픽은 나라를 대표해 나가는 것이다. 레이스에만 집중하고 최고의 컨디션을 발휘해야만 한다"면서 연관성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다만 박태환은 "정신적으로 자리를 잡지 못했다고 뒤늦게 생각이 들지만 그런 부분으로 인해 내가 못했다는 변명은 하고 싶지는 않다. 어차피 내가 못한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응원해주셨는데 멋진 레이스를 못 보여드려서 아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5월25일 만남 외에는 김 전 차관을 포함한 다른 고위 관계자들로부터 협박성 발언을 접한 기억이 없다고 밝힌 박태환은 "이런 이야기가 오르내리면 나도 부담이 많이 된다. 선수로서 국민들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우선"이라며 좋지 않은 이야기로 거론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박태환은 지난 20일 일본 도쿄에서 끝난 제10회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4개(자유형 100m·200m·400m·1500m)와 동메달 1개(계영 400m)로 부활을 알렸다.

박태환은 "시상대에서 애국가를 들은 것이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다. 긴장을 많이 했다. 원래 따라붙었을텐데 첫 날에는 정신이 없어서 얼떨떨했다"고 웃었다.

"리우에서의 레이스는 나도 답답했다. 내 몸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고 계속 답답한 레이스를 했다. '진짜 안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다"는 박태환은 "전국체전과 이번 대회에서 좋은 기록이 나와 자신감이 생긴다. 더 열심히 해서 발전할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민근기자